

아침세평

문 밖에 서 있는 아동그룹홈

박병훈



특록브레이인심리법달연구소 대표

달력 한 장만이 외롭게 을사년 한 해를 불든 채 나부끼고 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금년 한 해는 난세였다.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사회였다.

변동불거는 주역에서 따온 것으로 ‘변하고 움직여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동불거를 올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교수신문은 우리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고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를 상징이나 하듯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의 금년 한 해는 모순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일터로 나갔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의 눈가에 깊이 베인 상처를 남긴 체눈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은 도처에서 일어났다. 이를 모를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나라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코리언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 또한 죽음과 차별을 마주

하고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나 정답을 강요하면서도 맞출 수 없도록 출제된 복수수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수능은 모순이 너무 많이 드러나 폐기해야 할 것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

개천에서 을나가 했던 교육은 사라졌다. 계층 이동의 통로였던 교육은 양극화와 결합하여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하는 계층 세습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국민을 섬기라고 뽑았던 이상한 대통령의 등장은 한국사회를 후퇴시키고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숨은 불씨였다.

연말을 정리하면서 사랑으로 넘실거리며 할 거리와 계엄과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맹령들을 쫓아내기 위한 정의의 칼날이 대면하고 있다.

한 연예인은 소년 시기에 저지른 한 때의 잘못으로 인해 은퇴를 선언했다. 한 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높은 양반들이 가장 슬픈 표정으로 초췌하게 법정을 들락거리며 자기 살길만을 도모하는 모습과 너무 판이하다.

모순은 사회복지현장인 아동그룹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내년도 중앙정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됐다.

특히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20.2% 인상해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를 비웃기도 하듯 광주시는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무려 26.6%나 감액 편성해 이런 정부의 의지 표명에 찬물을 뿐였다.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예산의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그룹홈 돌봄체계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향상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동일한 자격을 요구받는 다른 아동 시설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명백한 차별이다.

이런 불평등한 처우는 아동 그룹홈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직업에 대한 회의와 함께 소진,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아동 돌봄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대형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탈시설화로 돌아가고 있다. 아동들은 가족이나 이와 비슷한 환경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적절한 기관이 아동그룹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동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특수유아이동들이 대부분이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재교육과 역량강화는 필할 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텐데도 인건비를 26.6%나 깎았다니 어안이 병행할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조장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광주시는 아동그룹홈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람은 큰 은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망각하지만 작은 상처는 둘에 새기듯이 오래 간직하는 존재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사설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전국으로 확산된다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화두다. 이제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문하면서 부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안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신안군을 모델로 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류부지, 농지·자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 기후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 법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초기 투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정·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게 주 내용이다. 기존 발전사업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는 점은 특별하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태양광발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1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연결되며 지역상권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매년 감소하던 인구도 2023년부터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연금 지급 대상자도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으로까지 확대됐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소까지 가동돼 바람연금까지 지급돼 신안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바람연금이 전국화돼 지역소멸 위기에 빠진 전국의 모든 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바란다.

혁신도시 빙상가 임차료 지원, 성과 거둬야

나주시가 빙가람혁신도시의 빙상가의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상가 공설 문제 개선과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기업의 유치와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상은 연 300만원 이상의 비주거용 사무실을 임차한 기업에 한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연 임차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급키로 했다.

특히 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 벌교·유치기업, 관외 이전기업과 혁신도시 상가 공설을 최대구역인 빙가람행정복지센터 인근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사실 나주혁신도시의 빙상가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올 1분기 조사한 이 곳의 집합 상가 공설률은 42.23%에 달했고 2분기 조사에서는 37.05%로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앞서 나주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2023년 7~8월 두 달간 전체 상가 6977실을 방문 조사한 결과도 상가 평균 공설률이 43.4%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낮은 지역 정착률, 주민마다 빙상도심·생활SOC의 부족,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된 상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경기가 해마다 악화돼 소상공인들은 관리비 체납과 단전·단수 등의 위협에까지 시달리고 있다.

물론 나주시도 그동안 이 곳의 빙상가 활로 모색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최근 도시계획 수립 이후 12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확정하며 규제 대폭 완화라는 치방전을 내놓았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설박람회’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여전히 침체된 지역경기와 늦어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긴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광주시·전남도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등 매력있는 상권조성을 위한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도 절실했던 시점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동로 254				정 치 부	370-7010	논 설	370-7200		
우편번호 61234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면 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 지사	02-978-709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기고

군 경력! 이제는 사회의 경쟁력이 되다

박규정

국가보훈부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 실무관